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2014년 09월 03일 수요일

KOSPI

2051.58 ▼-16.28 (-0.79%)

	8/29	9/01	9/02
종가	2068.54	2067.86	2051.58
등락	-7.22	-0.68	-16.28
등락폭(%)	-0.35	-0.03	-0.79
거래량(백만주)	299	271	321
거래대금(십억원)	4,000	3,184	3,967
시가총액(십억원)	1,195,488	1,194,979	1,185,648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568.74 ▲1.79 (0.32%)

	8/29	9/01	9/02
종가	570.20	566.95	568.74
등락	-0.04	-3.25	1.79
등락폭(%)	-0.01	-0.57	0.32
거래량(백만주)	403	396	342
거래대금(십억원)	2,268	1,999	2,059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믿음/기대 업종은 담고, 실망 업종은 신중하게

Focus ▶ 3p 참고

Strategist 이경민 02.769,3840 kmlee337@daishin.com

최근 KOSPI의 부진은 펀더멘털 모멘텀보다는 환율과 수급이슈가 원인. 단기 변동성 확대 국면을 주식비중 확대, 포트폴리오 정비 및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2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되며 불확실성은 낮아지고, 실적 가시성은 높아지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음. 시장보다는 업종/종목별 대응전략에 집중. 신뢰도 확대, 이익모멘텀이 유효한 은행, 증권, 건설, 철강, IT가전 업종. 하반기에도 시장 주도력 이어질 전망. 비중확대 전략 지속. 한편, 턱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소매(유통), 화학, 자동차/부품 업종. 점진적으로 관심 높여갈 필요 있음. 업종 확산 여부가 KOSPI 고점 돌파의 키 팩터

증시일정 ▶ 2p

파생시황 ▶ 12p

Chart Alarm ▶ 13p

매매 및 자금동향 ▶ 19p

2일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세가 거세지며 전일대비 0.79% 하락한 2051.58에 거래를 마감

주간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5	26	27	28	29
美 7 월 신규주택매매 (전기:422K, 발표:412K) 獨 8 월 IFO 기업환경 (전기:108.0, 발표:106.3)	美 7 월 내구재주문 (전기:2.7%, 발표:22.6%) 美 6 월 CS 주택가격 (전기:-0.26%, 발표:-0.2%)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299K, 발표:298K) 美 2Q 경제성장률(2 차) (1 차:4.0%, 발표:4.2%) 美 7 월 미결주택매매 (전기:-1.3%, 발표:3.3%)	美 6 월 개인소득 (전기:0.5%, 발표:0.2%) 美 6 월 개인소비 (전기:0.4%, 발표:-0.1%) EMU 8 월 소비자물가 발표 (전기:0.4%, 발표:0.3%) 韓 7 월 산업생산 (전기:0.4%, 발표:3.4%) 韓 7 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전기:101.5, 발표:101.6)
9/1	2	3	4	5
EMU 8 월 제조업 PMI 최종 (전기:52.8, 예상:50.8) 獨 2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1.2%, 예상:1.2%) 中 8 월 제조업 PMI (전기:51.7, 예상:51.2) 中 8 월 HSBC 제조업 PMI 최종 (전기:51.7, 예상:50.3) 韓 8 월 수출 (전기:5.7%, 예상:-0.8%)	美 8 월 제조업지수 (전기:57.1, 예상:57.0) 韓 8 월 소비자물가 (전기:1.6%, 예상:1.6%)	美 7 월 제조업수주 (전기:1.1%, 예상:10.9%) EMU 7 월 소매판매 (전기:2.4%, 예상:0.9%) EMU 2Q 경제성장률(잠정) (예비:0.7%, 예상:0.7%) 美 베이지북 日 금정위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298K, 예상:300K) 美 8 월 ADP 민간취업자변동 (전기:218K, 예상:225K) 美 8 월 비제조업지수 (전기:58.7, 예상:57.5) 韓 2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3.6%, 예상:--) ECB 회의 日 금정위	美 8 월 비농업취업자변동 (전기:209K, 예상:225K) 美 8 월 실업률 (전기:6.2%, 예상:6.1%) 獨 7 월 산업생산 (전기:-0.5%, 예상:0.6%)
8	9	10	11	12
EMU 9 월 섹터스기대지수 (전기:2.7, 예상:--) 中 8 월 수출 (전기:14.5%, 예상:10.7%) 中 8 월 수입 (전기:-1.6%, 예상:2.0%) 日 2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6.8%, 예상:--)		美 7 월 도매채고 (전기:0.3%,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8 월 생산자물가 (전기:-0.9%, 예상:--) 中 8 월 소비자물가 (전기:2.3%, 예상:--) 韓 8 월 실업률 (전기:3.4%, 예상:--)	美 8 월 소매판매 (전기:0.0%, 예상:--) 美 9 월 소비심리지수 (전기:82.5, 예상:--) EMU 7 월 산업생산 (전기:0.0%, 예상:--) 韓 금통위
15	16	17	18	19
美 8 월 산업생산 (전기:0.4%, 예상:--) 美 8 월 설비가동률 (전기:79.2%, 예상:--)	美 8 월 생산자물가 (전기:0.1%, 예상:--) 獨 9 월 ZEW 예상 (전기:8.6, 예상:--) 美 FOMC	美 8 월 소비자물가 (전기:0.1%, 예상:--) EMU 8 월 소비자물가 최종 (전기:0.3%, 예상:--) 美 FOMC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8 월 주택착공건수 (전기:1093K, 예상:--) 美 8 월 건축허가건수 (전기:1052K, 예상:--) 日 8 월 수출 (전기:3.9%, 예상:--) 日 8 월 수입 (전기:2.3%, 예상:--)	美 8 월 선행지수 (전기:0.9%, 예상:--)
22	23	24	25	26
美 8 월 기준주택매매 (전기:5.15M, 예상:--)	EMU 8 월 복합 PMI 잠정 獨 8 월 제조업 PMI 잠정 中 9 월 HSBC 제조업 PMI 잠정	美 8 월 신규주택매매 (전기:412K, 예상:--) 獨 9 월 IFO 기업환경 (전기:106.3,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8 월 내구재주문 (전기:22.6%, 예상:--)	美 2Q 경제성장률(3 차) (2 차:4.2%, 예상:--) 日 8 월 소비자물가 (전기:3.4%, 예상:--)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투자포커스

믿음/기대 업종은 담고, 실망 업종은 신중하게

Strategist 이경민 769-3840 kmlee337@daishin.com

믿고 담아도 되는 업종 : 은행, 증권, 건설, 철강, IT가전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 : 소매(유통), 화학, 자동차/부품

※ 최근 KOSPI의 하락 원인 : 경제심리 강화와 환율/수급 이슈

KOSPI가 2,050선으로 내려앉았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국내외 이슈가 예정된데 따른 경제심리에, 엔화 약세와 금융투자의 차익매물 출회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금융투자의 차익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하락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최근 KOSPI의 부진을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분기 실적시즌의 시사점

2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되었다.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7.7% 하회했다(영업이익 기준). 표면적으로 부진한 실적 시즌이었지만, KOSPI는 견조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KOSPI가 어닝쇼크흐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 업종에서 나타난 실적쇼크를 제외할 경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낮아지고, 가시성은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보다는 업종/종목별 대응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1) 믿을 만한 업종 : 은행, 증권, 건설, 철강, IT가전

은행, 증권, 건설, 철강, IT가전 업종은 1분기, 2분기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며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 업종은 하반기 이익모멘텀이 강하고 이익 전망치도 우상향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수혜주/중국모멘텀/하반기 글로벌 소비사이클이라는 이슈도 유효하다. 이들 업종의 주도력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 신뢰를 잃은 업종 : 에너지, 조선, IT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IT하드웨어 업종은 1분기, 2분기 연속 어닝쇼크가 발생했고, 하반기 이익 전망치 하향조정세도 여전하다. 실적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3)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 : 소매(유통), 화학, 자동차/부품

한편, 소매(유통), 화학, 자동차/부품 업종의 실적 턴어라운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기/연간 이익 모멘텀과 실적 신뢰도가 유효함에 따라 분위기 반전을 기대한다. 추석 연휴 이후 이들 업종으로 매기확산 여부에 주목한다.

2,050선까지 내려앉은 KOSPI. 부진의 원인은?

KOSPI가 2,050선으로 내려앉았다.

대형 이벤트와 추석 연휴,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경제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율과 수급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3거래일만 지나면 5일이라는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 이후 첫 거래는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쿼드러플 위칭데이)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4일 ECB 회의, 일본 금정위, 5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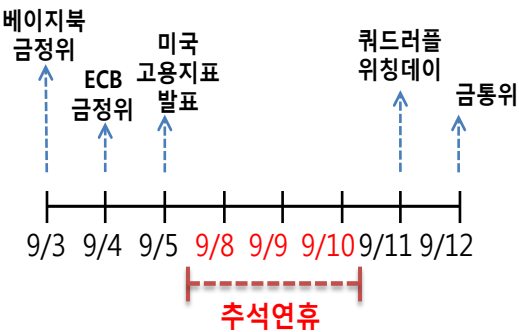
투자자들의 적극성이 떨어질 시기에 연휴 전후로 국내 이벤트와 미국/유럽/일본의 대형 매크로 이슈가 가세하면서 투자자들의 경제심을 자극하고 있다. 4조원에 못미치는 거래대금이 이러한 투자심리를 대변한다.

게다가 전일에는 환율 이슈와 수급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내각 개편 계획이 일본공적연금(GPIF)의 개혁, 자산배분 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읽혀졌다. 이에 엔/달러 환율은 105엔선에 바짝 다가섰고, 원/엔 환율은 장중 970원선을 이탈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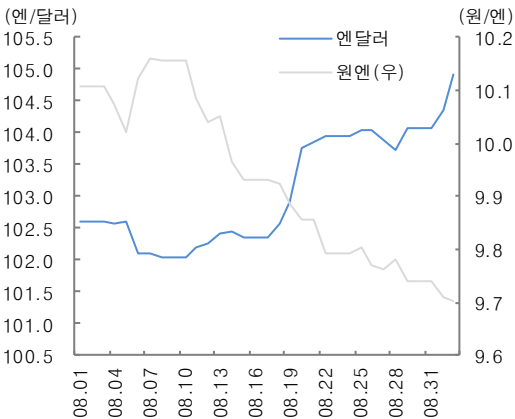
이와 함께 헤지성격의 외국인 선물매도가 선물 베이스스 축소, 금융투자 차익매물로 이어졌다.

그림 1. 연휴 전후로 국내외 대형 이벤트 예정. 경제심리 자극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엔/달러 105엔선 근접, 원/엔 장 중 970원선 이탈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펀더멘털보다 환율/수급 이슈로 인한 KOSPI 부진. 기회로 활용

KOSPI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펀더멘털 모멘텀의 흔들림이나 글로벌 증시의 약세 전환 조짐은 없다.

KOSPI만이 환율과 수급이슈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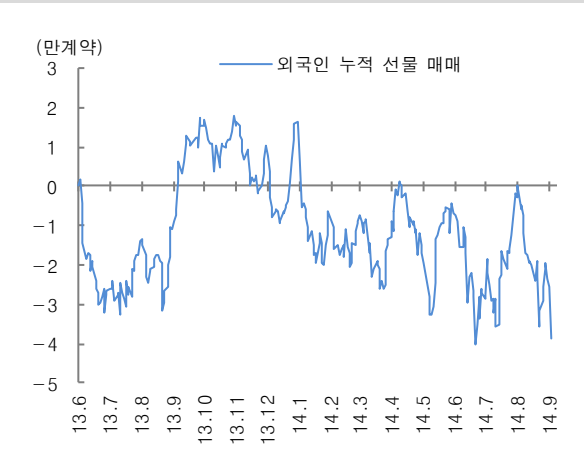
물론, 환율 변수에 따른 수출주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부담이 KOSPI 부진의 주된 이유라면 이를 주식비중 확대, 포트폴리오 정비 및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엔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금융투자의 차익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KOSPI는 환율/수급 부담의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엔/달러의 고점 돌파/추세변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 단행 여부이다. 그러나 신속한 정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GPIF의 자산 운용 개혁(자산 배분 변화)도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 선호도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8월 27일 투자포커스, “엔달러 3차 랠리. 고점 돌파는 어렵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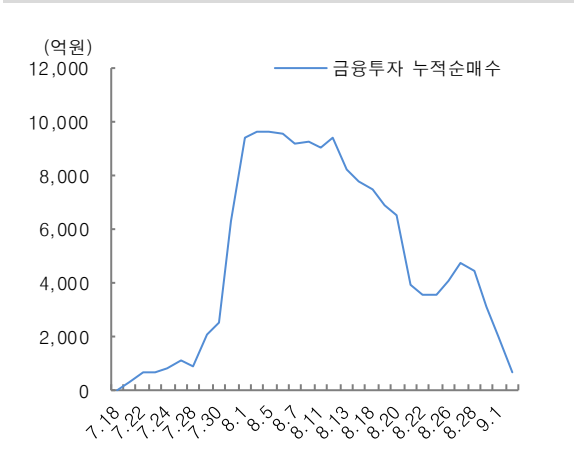
8월들어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만만치 않다. 특히, 선물 베이스스가 축소되기 시작한 8월 중순 이후 대량 매도가 연이어 지속되며 KOSPI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의 매물은 대부분 소화되었다. 7월 만기 이후 유입된 금융투자의 차익거래(약 1조원)도 8월 이후 꾸준히 출회되면서 이제 남은 물량은 6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 직후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맞게될 물량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저점권에 도달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금융투자의 매물. 600억 정도 남아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분기 실적시즌의 시사점 : 시장보다는 업종에 집중

2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되었다. 실적 전망치가 유효한 176개 종목 대상을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7.7% 하회(영업이익 기준)했다. 1분기와 비슷한 결과로 표면적으로는 부진한 실적 시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적 부진에 따른 추가조정은 크지 않았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KOSPI가 어닝쇼크 흐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 업종에서 나타난 실적쇼크를 제외할 경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낮아지고, 가시성은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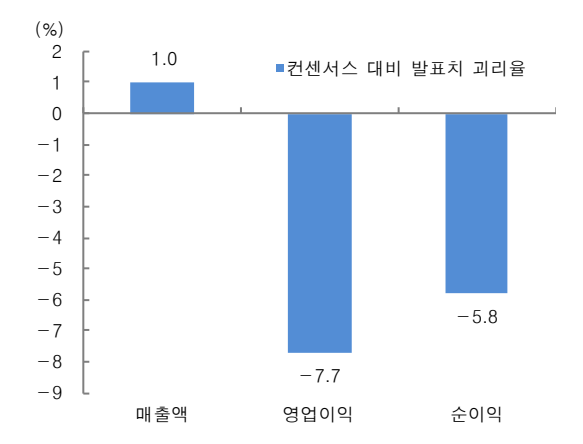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4분기 26%에 가까운 어닝쇼크(예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를 기록했던데 반해, 1분기에는 -7.4%, 2분기에는 -6.57%로 2분기 연속 한자리수대 부진에 머물렀다. 특히, 2분기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두 종목에서만 발표치와 추정치간 차이가 1.9조원에 달했음(KOSPI 전체 차이는 2.2조원) 감안하면 1분기 실적시즌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물론,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시즌이 이어지고 있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실적 신뢰도를 높여가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다. 업종/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1분기, 2분기 실적시즌 결과와 하반기 이익모멘텀, 최근 이익 추정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업종별 투자전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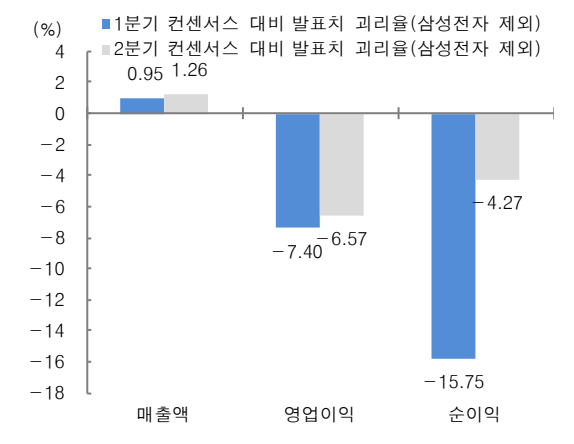
- 1) 믿을 만한 업종 : 은행, 증권, 건설, 철강, IT가전
- 2) 신뢰를 잃은 업종 : 에너지, 조선, IT하드웨어
- 3)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 : 소매(유통), 화학, 자동차/부품

그림 5.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 7.7% 하회



주: 대상 종목은 KOSPI내 1분기/2분기 전망치가 모두 유효한 176개 종목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삼성전자 제외할 경우 2분기 실적시즌 소폭 개선



주: 대상 종목은 KOSPI내 1분기/2분기 전망치가 모두 유효한 176개 종목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1) 믿을 만한 업종 : 은행, 증권, 건설, 철강, IT가전

일부 업종은 1분기, 2분기를 통해 실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이익에 대한 신뢰도를 마련할 계기를 마련했다. 디스플레이, IT가전, 보험, 증권, 화장품/의류, 철강, 소프트웨어, 건설, 화학, 반도체, 은행, 유틸리티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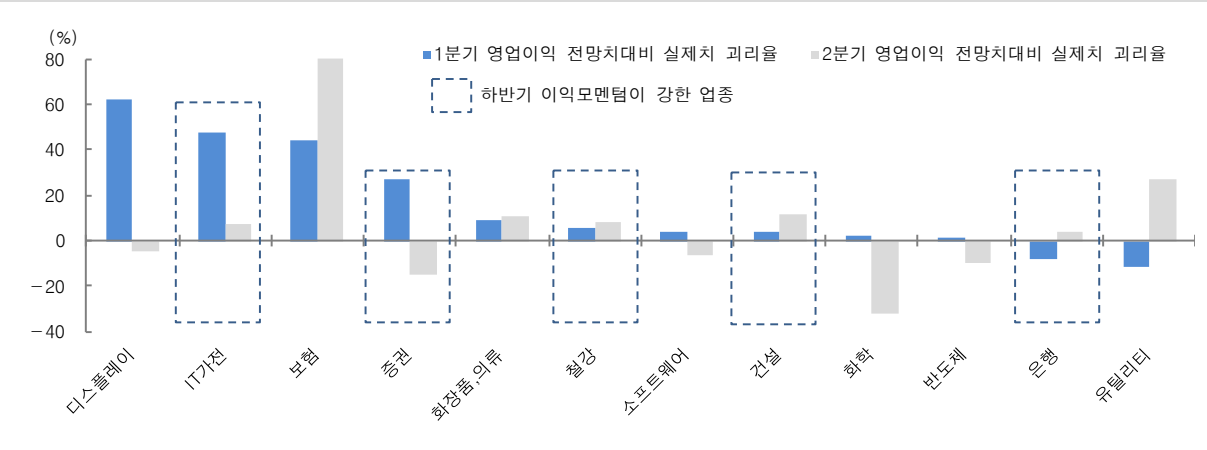
특히, 이들 업종 중 하반기(3분기, 4분기 모두) 이익모멘텀이 강한 업종은 은행, 증권, 건설, 철강, IT가전이다. 게다가 2분기 실적시즌 이후 3분기/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우상향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확실한 이익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업종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정책수혜주/중국모멘텀/하반기 글로벌 소비사이클이라는 이슈와 펀더멘털 모멘텀도 유효하다.

2분기 실적시즌 이후 시작된 이들 업종의 주도력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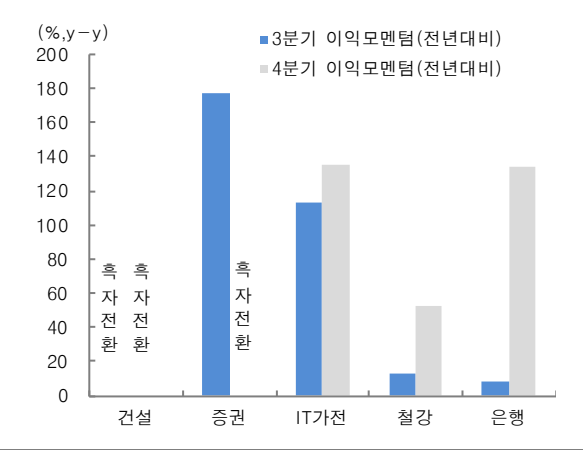
믿고 비중을 늘려가도 좋은 업종이다.

그림 7. 1분기, 2분기 실적시즌을 통해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업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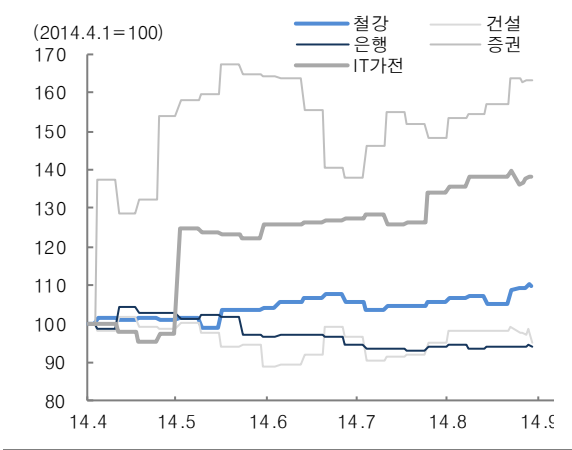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건설, 증권, IT가전, 철강, 은행의 하반기 이익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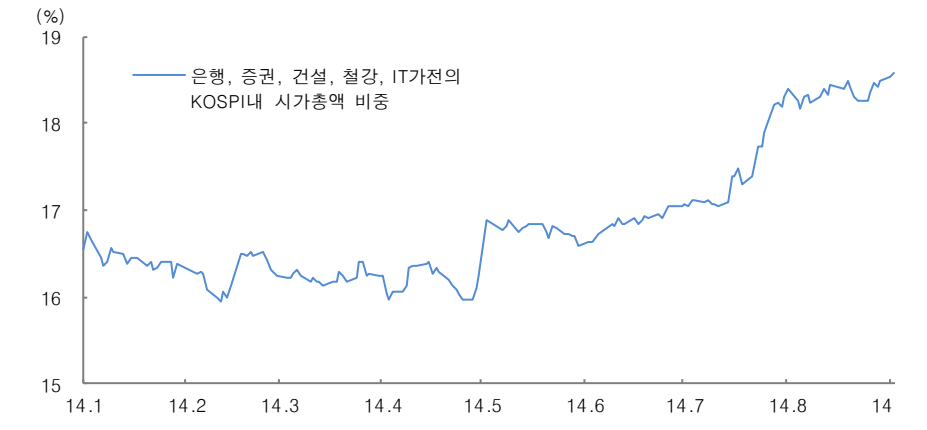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2014년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이



주: 2014년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로 1개월 컨센서스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모멘텀과 신뢰도가 강한 업종의 시장 주도력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 신뢰를 잃은 업종 : 에너지, 조선, IT하드웨어

한편,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쇼크가 발생한 업종에는 기계, 통신서비스, 에너지, IT하드웨어, 운송, 조선업종이 있다.

특히, 에너지, IT하드웨어, 조선 업종은 최근까지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의 하향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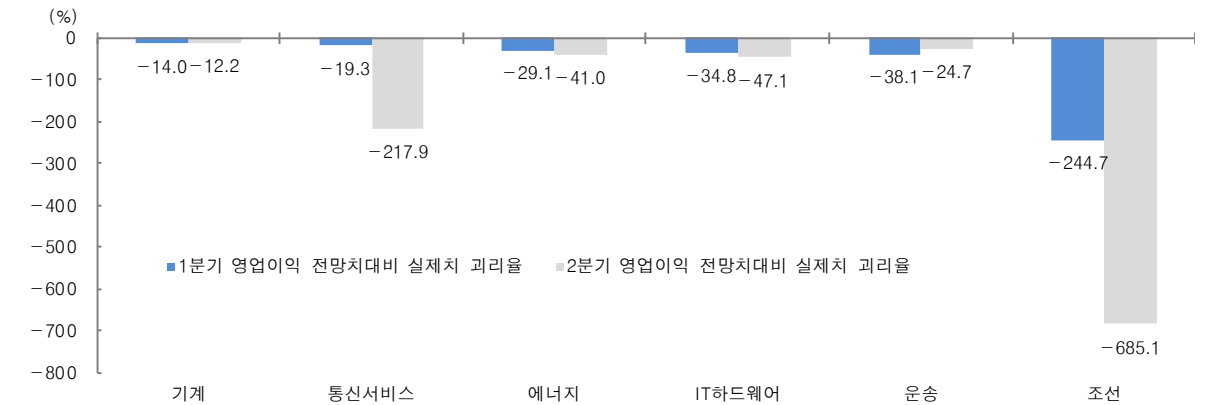
실적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급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KOSPI의 등락과 상관없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매패턴을 보면 이들 업종은 차별적인 매도, 비중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단기 가격메리트에 따른 반등시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 추세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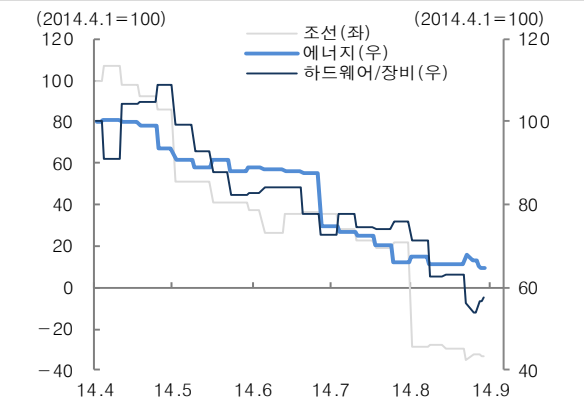
이들 업종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1 분기, 2분기 연속 실적쇼크 발생 업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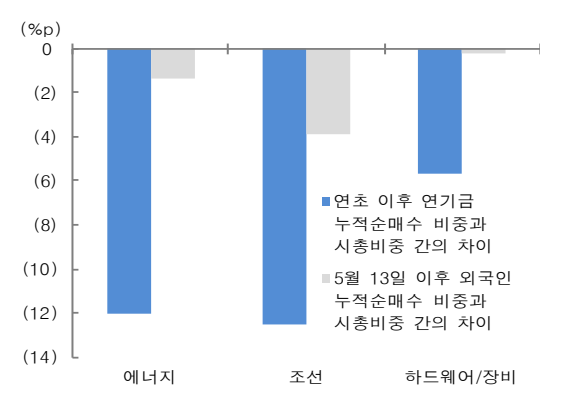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실적 신뢰도 약화로 이익전망치 하향조정세 지속



주: 2014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로 1개월 컨센서스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연기금과 외국인의 비중축소 뚜렷



주: 연초 이후 연기금과 5월 13일 이후 외국인의 업종별 누적순매수 비중과 업종
별 시가총액 비중 간의 차이. (-)는 비중축소의 의미
자료: CITI,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3)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 : 소매(유통), 화학, 자동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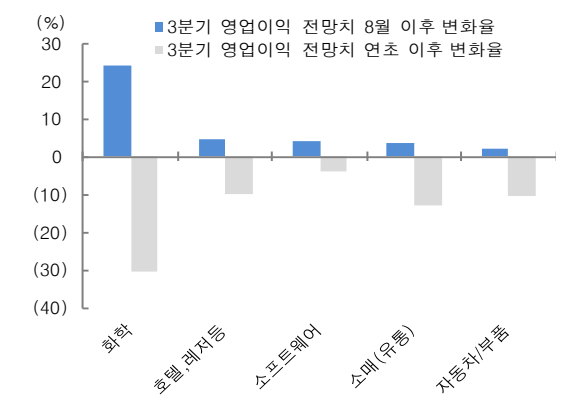
한편, 시장 전반적인 신뢰도가 크지 않은 가운데 8월들어 실적 전망치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그 동안 하향조정세가 이어지던 업종들 중심으로 반등세가 뚜렷하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화학, 호텔/레저, 소프트웨어, 소매(유통), 자동차/부품 업종이 있다.

이들 업종 대부분은 3분기 이익모멘텀(전분기대비)이 강하다. 이들 업종 중 소매(유통), 호텔/레저 업종은 전년대비 변화율 또한 3분기, 4분기 모두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업종의 경우 구조적인 변화(에틸렌 상승/납사 하락)가 나타나고 있어 종목별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우 실적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다양한 약재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환율이 수출주 변동성을 자극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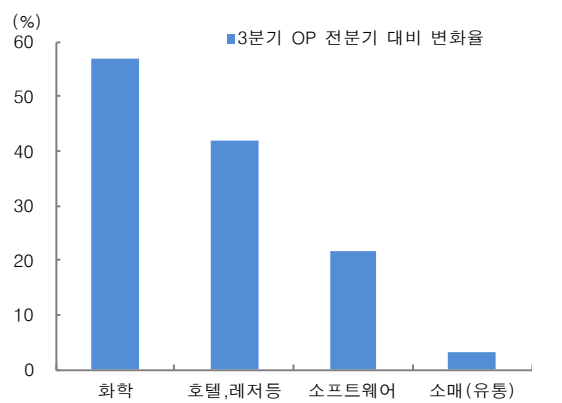
하지만, 자동차/부품 업종은 실적시즌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2분기 각각 전망치 대비 2.1%, 3.7% 하회하는데 그쳤다.

그림 14.8월 이후 영업이익전망치 개선세가 나타난 업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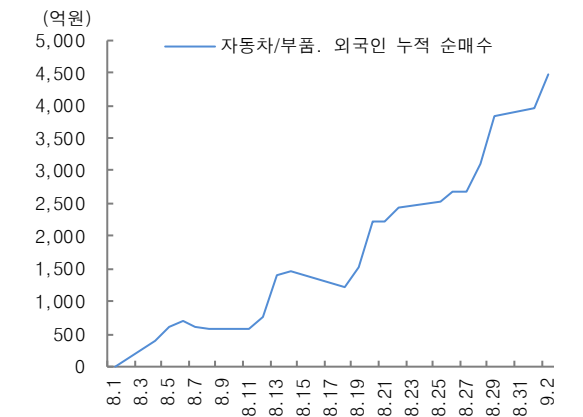
자료: ThomsonReute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전분기대비 개선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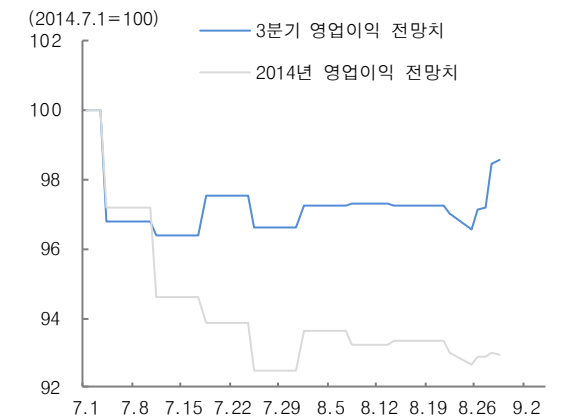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자동차/부품 업종,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 유입



자료: ThomsonReute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자동차/부품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이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8월 판매량도 조업일수 감소와 파업의 여파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율 부담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온 저력을 외국인들은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군들의 9월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주도 업종의 KOSPI내 시가총액 비중이 18%에 그치고 있어 KOSPI의 고점 돌파 및 안착, 추세변화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힘겨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 세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14%이다. 기존 주도주에 소매(유통), 화학, 자동차/부품 업종의 탄력적인 반등세가 가세할 경우 KOSPI 시가총액 비중의 32%에 달한다. 이 정도면 KOSPI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석 연휴에는 믿을 수 있는 업종군으로 압축 포트폴리오 유지 연휴 이후 턴어라운드 업종군의 매매타이밍 잡기

추석 연휴를 앞둔 투자자들의 최대 고민은 연휴 전 주식비중을 줄여 놓을지, 현재 수준을 유지한 채로 고향에 다녀올지이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게 이어져 있고, 추석을 전후로 국내외 큰 이슈가 예정되어있어 고민거리가 클 수 밖에 없다.

KOSPI지수가 2,050선까지 내려앉은 현재 상황에서의 결론은 “하반기 글로벌 유동성/펀더멘털과 국내 정책을 믿고, 좀더 압축된 포트폴리오로 추석 이후를 대비하자”로 말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주식 비중의 변화를 피하기보다는 상승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업종/종목군으로 압축해서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그 대상으로는 앞서 언급한 믿을 수 있는 업종, 은행, 증권, 건설, 철강, IT가전은 연휴 동안 비중을 유지하거나 좀 더 확대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소매(유통), 화학, 자동차/부품 업종은 추석 연휴 전에는 저점매수에 집중하고, 연휴 이후 좀 더 적극적인 매매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 특히,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우 환율과 기업이슈가 잦아들면서 반등세를 가시화해 나갈 전망이다.

파생시황

선물거래동향				
구분	9월 선물	12월 선물	KOSPI200	KOSPI
시가	264.9	266.3	264.96	2065.97
고가	265.05	266.45	265	2066
저가	262.25	263.8	262.29	2049.15
종가	262.95	264.45	262.61	2051.58
전일대비	-2.4	-2.35	-2.66	-16.28
(%)	-0.9	-0.88	-1	-0.79
거래량(계약)	149,324	3,241	56,932	319,591
거래대금(백만)	19,661,861	429,108	2,935,340	3,981,623
미결제약정	128,189	13,253		
전일대비	8586	2250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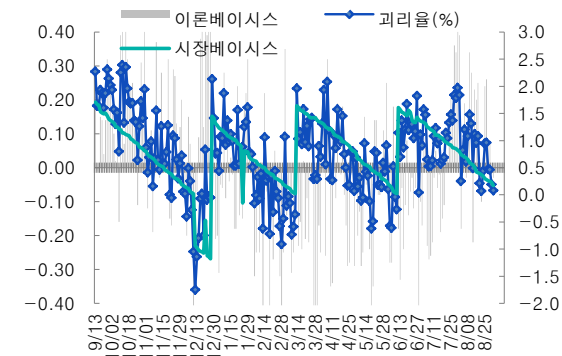
과리도				
구분	이론가격	과리율	종가Basis	평균Basis
최근월물	262.78	-0.07	0.34	-0.02
차근월물	264.35	-0.10	1.84	1.48

프로그램매매동향										(단위:백만원,%)
구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전체			비중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08/29	9,346	9,468	123	1,257,589	1,239,535	-18,054	1,266,935	1,249,004	-17,932	31.27
09/01	8,982	8,649	-333	620,387	569,398	-50,989	629,369	578,047	-51,321	18.86
09/02	10,145	9,110	-1,036	834,761	681,996	-152,765	844,907	691,106	-153,801	19.21

옵션거래동향					(단위: 계약, 배,%)
구분	CALL	PUT	합계	P/C Ratio	당일
거래량	1,233,470	1,139,609	2,373,079	0.92	
거래대금	364,721	477,295	842,016	1.31	
미결제약정	475,713	449,788	925,501	0.95	
내재변동성	10	9	10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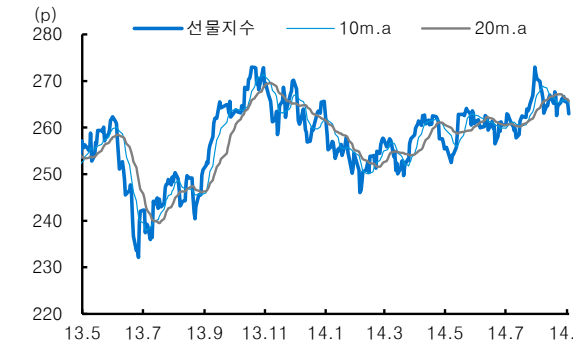
역사적 변동성				(단위: %)
구분	당일	52w High	52w Low	
20일	14.47	26.95	7.87	
30일	16.83	26.05	8.18	
60일	15.78	23.55	10.82	
90일	16.61	22.30	13.45	

현선물 베이스 추이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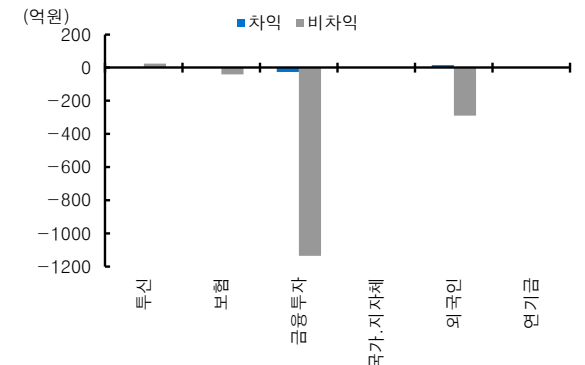
선물지수 추이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스프레드			
구분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J9JCS	1.45	0.00	1760
J9JCS	-	-	-

전일 주체별 프로그램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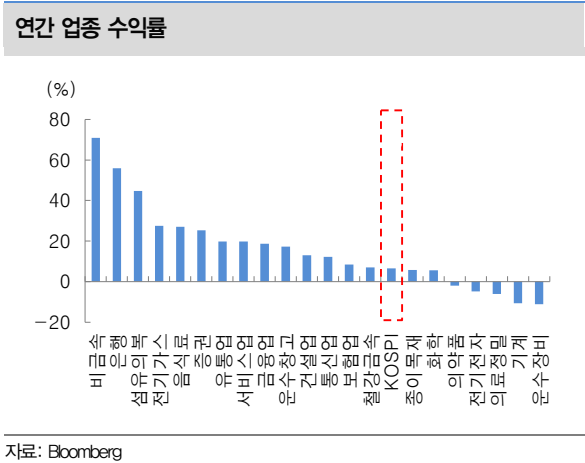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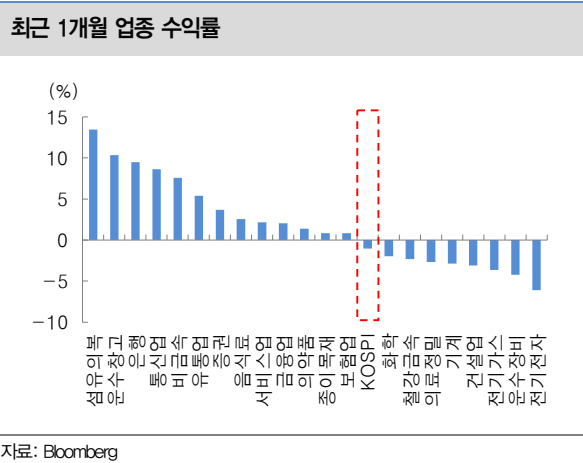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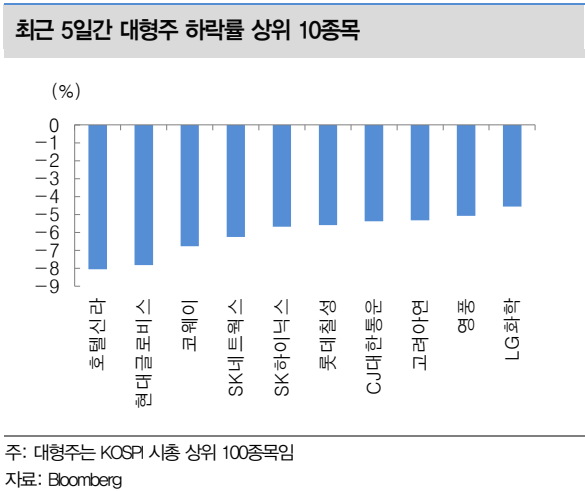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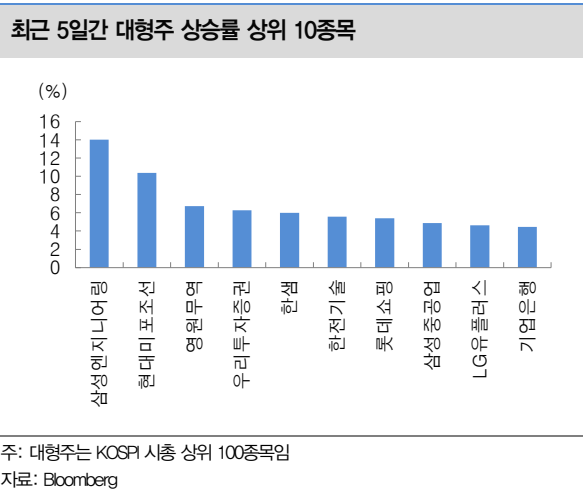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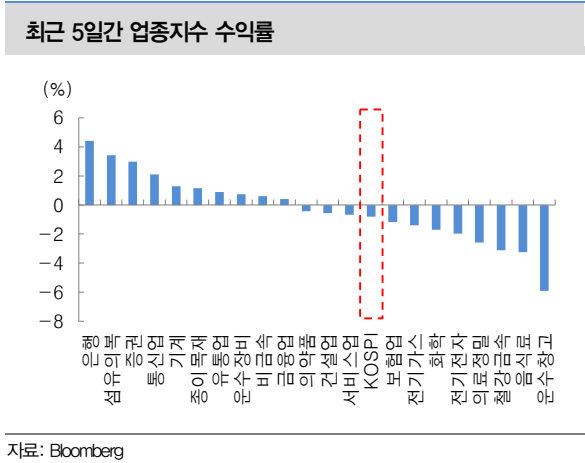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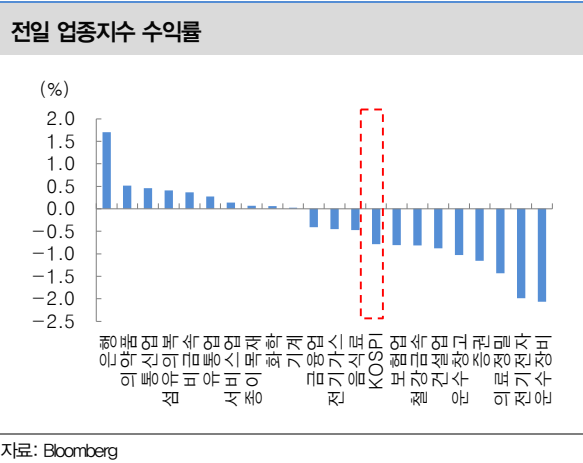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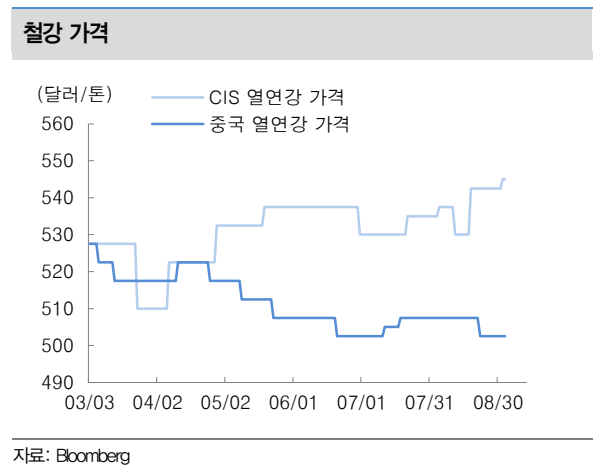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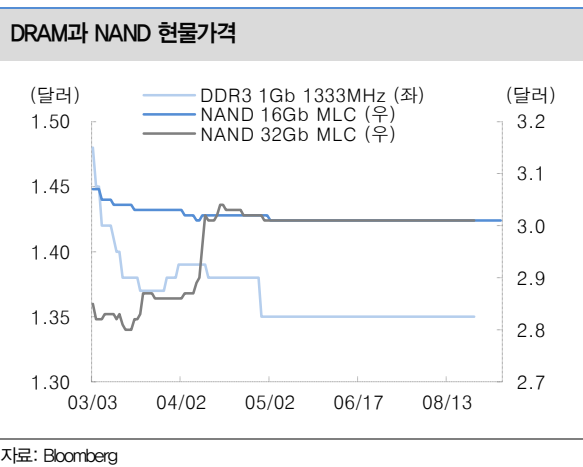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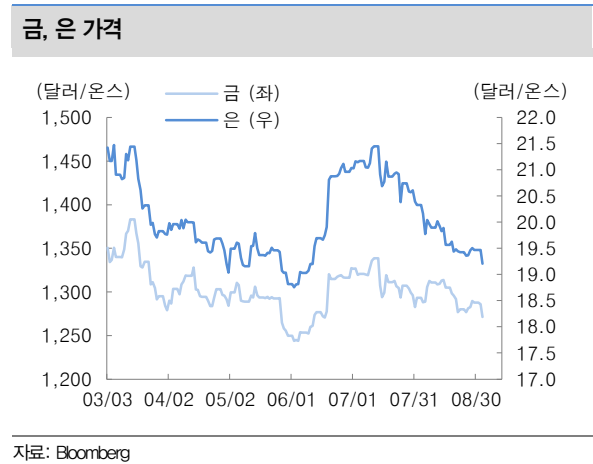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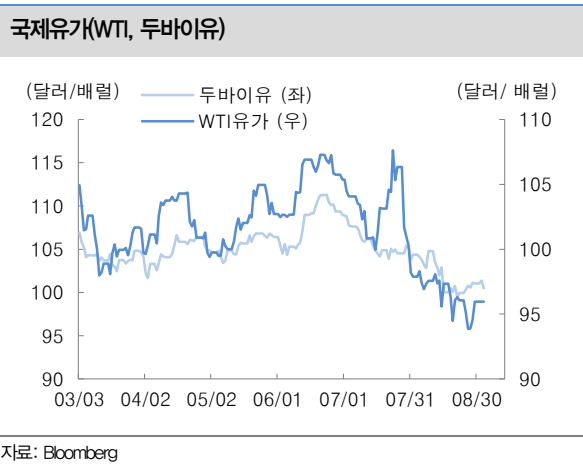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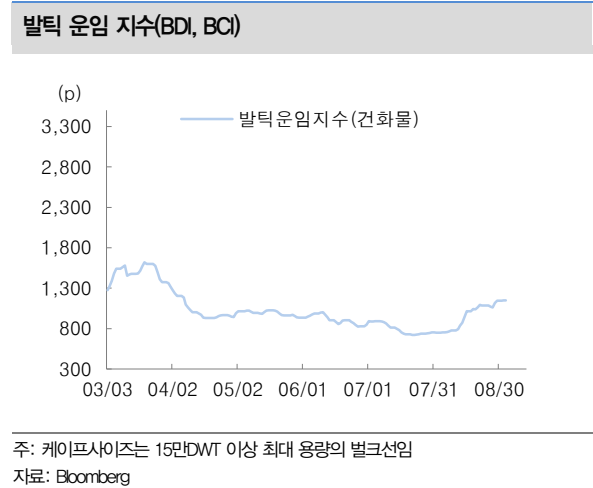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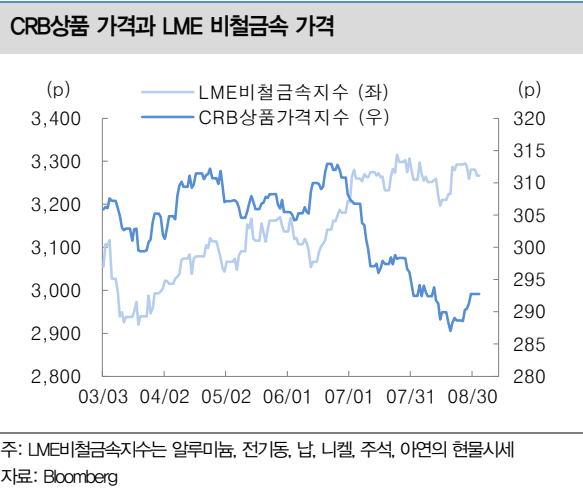
Chart Alarm

01. 주가 등락률
- 2일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세가 거세지며 전일대비 0.79% 하락한 2051.58에 거래를 마감
 -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936억원, 2097억원 순매수, 기관은 2915억원 매도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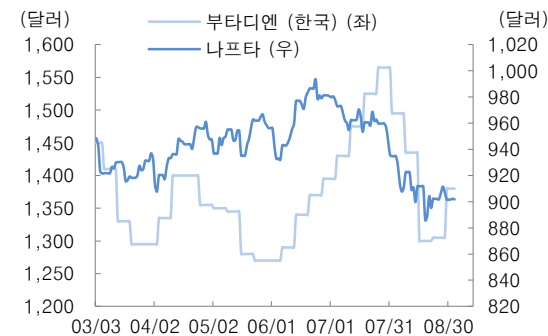
▶ 국내 증시



02. 상품가격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10% 하락한 95.86달러에 거래를 마감
 - 12월물 금값은 전날 증가보다 0.05% 오른 온스당 1288.0달러에 거래를 마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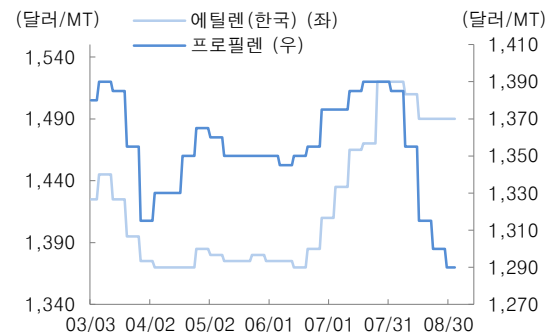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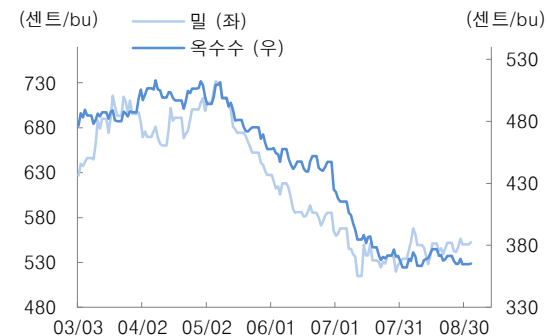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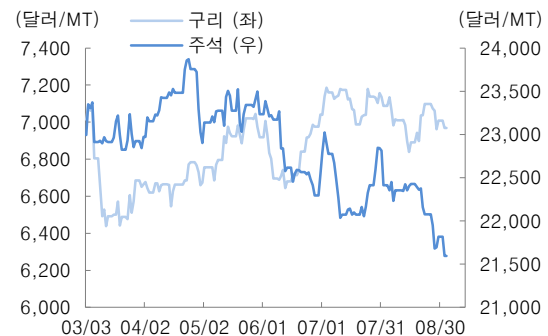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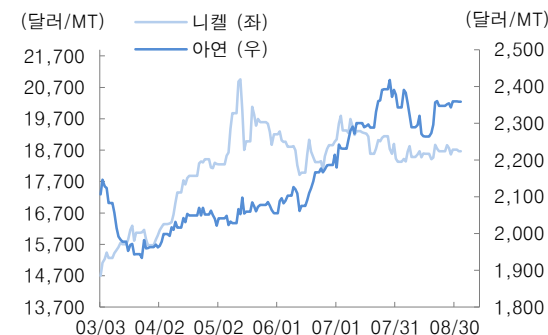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주석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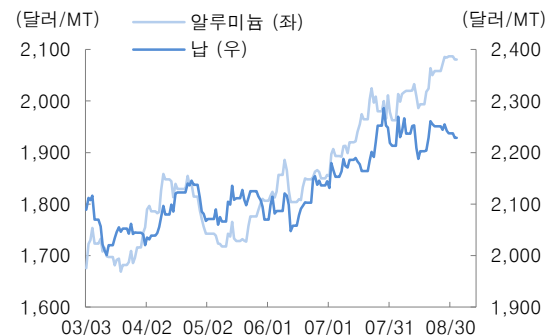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알루미늄,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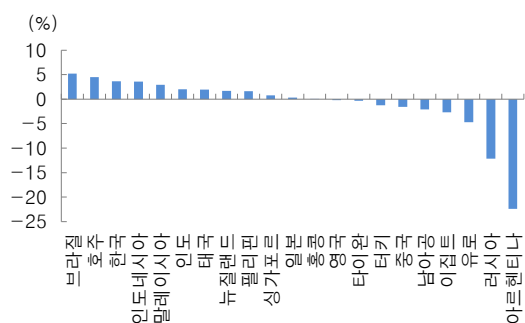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내린 1012.0원에 개장했으나 반등하며 전날 증가보다 5.20원 오른 1018.30원에 마감
-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6bp 하락한 2.512%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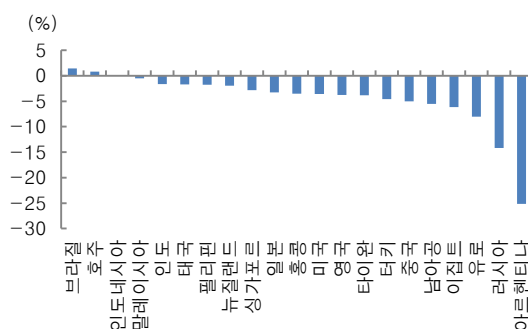
▶ **하** **아**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달러 대비)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원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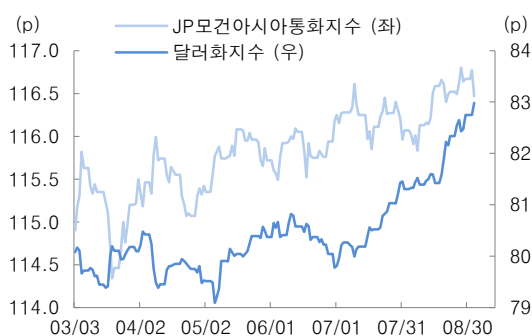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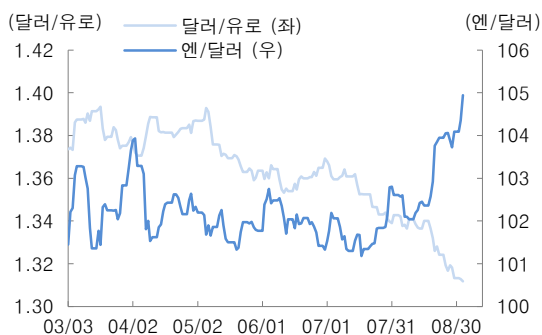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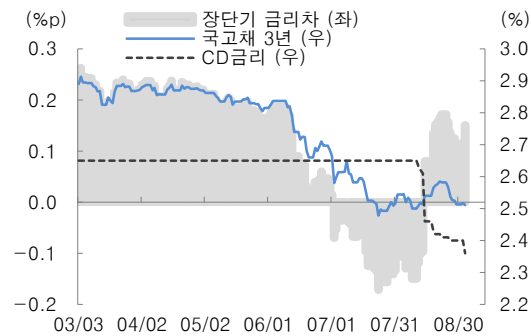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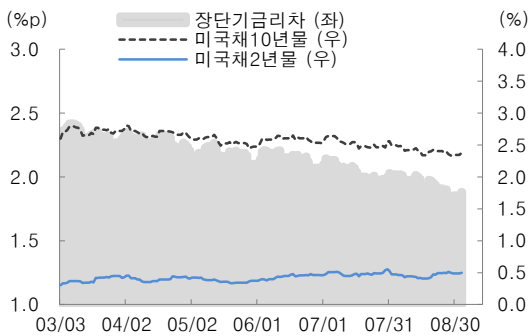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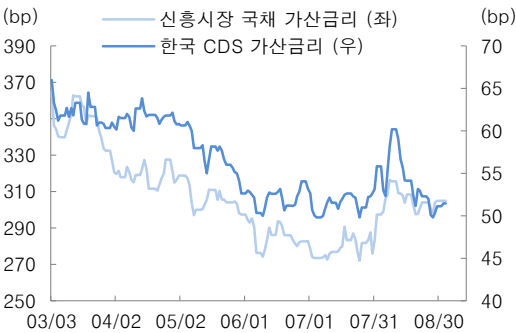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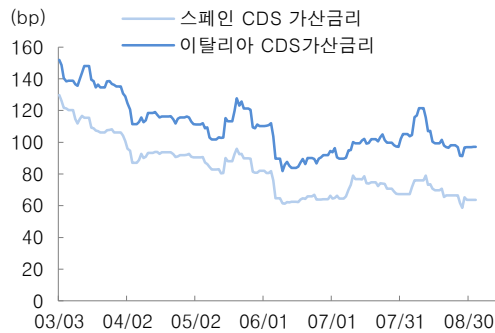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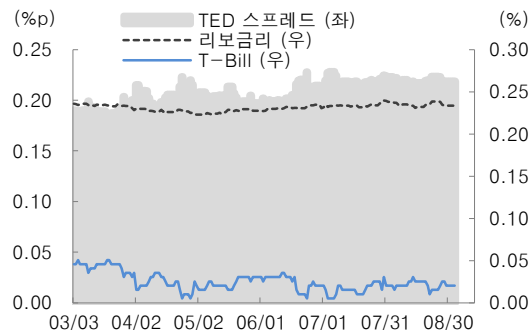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스페인, 이탈리아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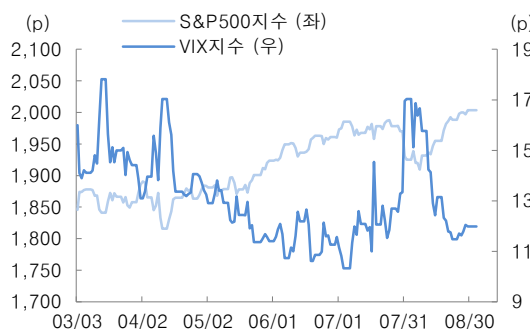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S&P500 지수와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9/02	9/01	8/29	8/28	8/27	09월 누적	14년 누적
개인	185.8	23.4	20.9	-79.2	-74.9	209	-724
외국인	33.3	63.9	155.0	127.4	50.9	97	8,226
기관계	-217.3	-77.3	-121.6	-31.8	43.9	-295	-6,201
금융투자	-129.2	-112.3	-135.9	-27.7	65.9	-242	-3,341
보험	-21.1	3.9	14.3	-2.3	3.9	-17	669
투신	-35.3	-4.7	-30.4	-52.5	-32.5	-40	-3,689
은행	4.9	-5.8	-1.2	9.1	-18.6	-1	-1,633
기타금융	2.4	1.5	-3.0	-1.2	-0.1	4	-638
연기금	9.7	1.2	8.1	7.5	27.0	11	3,680
사모펀드	-43.9	42.6	28.0	36.6	-14.5	-1	-469
국가지자체	-4.9	-3.7	-1.5	-1.4	12.7	-9	-779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현대차	32.0	삼성전자	44.0
삼성엔지니어링	29.5	삼성생명	14.4
KB 금융	21.6	아모레퍼시픽	13.2
현대모비스	17.3	LG 생활건강	12.1
삼성물산	11.3	SK 하이닉스	9.4
POSCO	9.0	LG 화학	7.5
SK 이노베이션	8.4	GKL	5.2
신한지주	7.4	KT	4.9
삼성중공업	7.2	SK C&C	3.8
NAVER	5.9	현대백화점	3.5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아모레퍼시픽	21.0	현대차	59.4
삼성생명	16.5	삼성전자	52.7
롯데쇼핑	8.2	삼성엔지니어링	25.7
LG 생활건강	7.4	현대모비스	19.8
SK C&C	6.2	SK 하이닉스	18.7
현대백화점	6.0	LG 화학	16.6
호텐신라	6.0	현대제철	11.2
KT&G	5.9	KB 금융	10.7
코스맥스	5.8	NAVER	10.1
KT	5.5	POSCO	9.2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메디톡스	5.4	파라다이스	2.2
다음	5.2	에스엠	1.5
CJ E&M	2.6	덕산하이메탈	1.3
코나아이	2.3	서울반도체	1.2
제이브이엠	2.2	알톤스포츠	1.0
원익 IPS	2.1	바이오스페이스	1.0
이지바이오	1.7	블루콤	0.6
토비스	1.7	다날	0.5
인터파크 INT	1.7	바이오랜드	0.5
리홈쿠첸	1.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0.4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에스엠	4.0	메디톡스	3.5
다음	2.8	파라다이스	3.3
르네코	2.0	CJ E&M	2.9
바이넥스	1.4	GS 홈쇼핑	1.8
로만손	1.4	제이브이엠	1.8
바이오스페이스	1.1	게임빌	1.2
리홈쿠첸	1.0	라이온캠텍	1.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0	우리산업	0.9
엘엠에스	0.9	삼목에스폼	0.8
동서	0.9	솔브레인	0.8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151.9	-2.9	호텔신라	76.9	0.8	아모레퍼시픽	44.4	3.2	삼성전자	234.0	-2.9
현대차	116.7	-1.1	GKL	48.8	-0.9	삼성생명	36.6	-1.8	현대차	96.4	-1.1
KB 금융	69.0	0.4	아모레퍼시픽	47.7	3.2	SK 텔레콤	33.2	2.5	SK 하이닉스	80.3	-2.9
삼성엔지니어링	55.2	12.0	KT&G	25.3	-0.9	KT	32.8	0.3	POSCO	41.2	-0.7
현대모비스	53.0	-0.9	SK 텔레콤	23.3	2.5	GKL	30.5	-0.9	현대모비스	38.5	-0.9
신한지주	47.0	-0.6	베아직하우스	17.5	-2.0	롯데쇼핑	25.8	2.1	현대제철	37.2	-4.0
POSCO	39.4	-0.7	삼성생명	17.5	-1.8	제일기획	22.8	2.2	LG 전자	28.7	1.1
삼성전자우	38.8	1.2	제일기획	13.6	2.2	세아베스틸	19.1	-8.5	LG 화학	27.1	-4.5
LG 전자	36.5	1.1	LG 생활건강	13.3	-2.8	LG	18.2	-0.8	SK 이노베이션	26.1	-0.5
기아차	35.5	0.5	SK 하이닉스	13.2	-2.9	KT&G	16.9	-0.9	현대글로비스	25.9	-5.9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9/02	9/01	8/29	8/28	8/27	09월 누적	14년 누적
한국	92.9	54.2	154.7	169.1	10.3	147	8,720
대만	-10.7	278.7	151.7	129.7	393.7	268	13,076
인도	--	--	--	-83.2	88.0	0	12,969
태국	26.3	47.1	-0.9	-4.0	13.1	73	-826
인도네시아	-19.6	10.9	-64.0	17.0	22.9	-9	4,834
필리핀	-12.9	-8.6	142.6	15.8	27.4	-22	1,285
베트남	--	--	42.5	-0.7	-6.3	0	255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